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12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반부패 선언' 알리바바, 내부인사 비리 적발돼 충격
- 수출입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SDG 본드 발행
-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어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유한킴벌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 사례

3. 청렴 위반 사례

- 시설비 확보 없이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사용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4. 지식마당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반부패 선언' 알리바바, 내부인사 비리 적발돼 충격



중국 인터넷 기업이 반부패를 위한 연맹을 조성한 이후 꾸준히 부패 척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阿里巴巴) 산하 문화·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아리다원위(阿里大文娱), 메이판텐핑(美團點評), 58그룹 내부에서 최근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달 26일 장용(張勇)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가 1차 구조 조정 대상으로 양웨이둥(楊偉東) 아리다원위(阿里大文娱) 순회 총재를 언급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양 총재가 '경제 문제'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4일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양웨이둥을 유쿠투더우(優酷土豆) 총재라고 강조할 뿐, 아리다원위 순회 총재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유쿠투더우가 아리다원위 소속이지만, 아리다원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양웨이둥의 사건이 터지자 그의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이 비리 적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 나오고 있다. 그간 알리바바는 다른 인터넷 기업과 함께 부패를 위한 연맹을 조성해 임직원이 비리부패를 저지르면 '무관용'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해왔기 때문.

<https://www.ajunews.com/view/20181205100822231>

2. 수출입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SDG 본드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3500억원 규모의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SDG 본드를 발행한 것은 수은이 처음이다. 만기는 2년, 발행금리는 2.00%(고정금리부 이표채)이며 인수단은 KB증권, 교보증권이다.

SDG 본드는 UN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개 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한해 채권발행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수은은 이날 SDG 본드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보급 △보건 증진 총 3개 부문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경제성장,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SRI)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말 기준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전 세계 운용 자산의 30%로 약 23조 달러에 달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SDG 본드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6726619435896&mediaCodeNo=257>

최근 동향 및 소식

3.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어



<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8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35개)의 올해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3만 6,767명(외부청렴도 152,265명, 내부청렴도 63,731명, 정책고객평가 20,771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7년~2018년)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56>

윤리경영 실천 사례

[유한킴벌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 사례

1. SDGs란?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지표를 담고 있다.

2. Goal 8. 가치소비를 만드는 시니어 사회 책임활동

시니어 산업 유성으로 공유가치창출

유한킴벌리는 2012년부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모델 개발에 앞장서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니어 기금'을 조성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시니어 일자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6개 시니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기업 발굴

유한킴벌리는 시니어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소기업,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여 액티브 시니어생활용품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말 총 26개 소기업, 65가지 제품 및 서비스가 발굴·육성되었다.

330개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액티브 시니어 확대

시니어들이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유한킴벌리는 시니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골든프렌즈 매장, 통합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니어용품 상담 업무에 55세 이상의 시니어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여 2016년까지 33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3. Goal 13 % 15. 가치소비를 만드는 숲 환경 사회책임활동



소비자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나무 심는 기회를 제공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지난 34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숲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2014년 3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인구와 같은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까지 52,192,514그루를 심었다.

제 1단계(1984~2014년) 목표는 국내외 조림·육림 5천만그루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고, 제 2단계 (2015~2025년) 목표는 숲과 사람의 공존을 통한 더 나은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는 것이다.

도시숲과 공존숲, 북한 등의 황폐지역 산림 복구를 위한 미래숲 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 환경리더들을 키우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지역의 숲모델 제시 - 숲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숲

유한킴벌리는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탄소흡수와 함께 산림복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공존숲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김천과 대전지역의 공존숲은 숲 조성 1단계 계획을 마쳤으며, 2018년까지 공존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에 공존숲 관리 및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한 3단계 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충주지역도 공존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준비의 숲 - 북한지역 숲 복구를 위한 양묘장 사업과 몽골지역의 산림 복구 노력

미래준비의 숲은 미래에 남북 교류시대를 대비해 북측의 황폐화된 숲을 복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업이다. 유한킴벌리는 민관공동사업으로 양묘장을 건설해서 숲 조성에 필요한 묘목을 준비할 예정이다. 2016년 5월에 파주양묘장 건설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양묘·조림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었으며, 2017년에는 화천 양묘장 건설에 착수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동북아산림포럼과 함께 산림생태 황폐화 극복을 위해 1999년부터 몽골 숲 복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도시의 숲모델 제시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숲 조성

유한킴벌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 '남산 시민 참여형 숲관리 모델사업' 협약을 맺고 약 2,921,000제곱미터를 가꾸고 관리하고 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생태축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여의도 - 양화 - 강서 지역에 한강숲 조성을 시작해 2016년에는 우리꽃, 우리나라를 담은 인덱스가든 I 을 조성하였고, 2017년에는 4계절 동안 빨주노초파남보 색색의 식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덱스가든 II 를 조성하였다.

작은숲이 모여 더 큰숲으로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민참여 공모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5개 지역 모임에서 신청한 지역에 아름다운 녹색 공간이 조성되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735개의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데에 함께 하여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학생들의 숲의 가치를 느끼고, 숲을 활용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위키백과,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식블로그, '[Goal 8, 13, 15]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유한킴벌리

김천숲	대전숲	충주숲
숲길중심형 자연휴양림	도시공원형 산림체험림	산촌소득형 복합경영림
		
·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 2,220,000 m ²	· 대전시 동구 추동 · 1,210,000 m ²	·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 647,306 m ²

<탄소상쇄림- 공존숲>

청렴 위반 사례

1 시설비 확보 없이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사용

A연구소는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연구실 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의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사용함

시사점 :

- ①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A연구소는 시설비를 연구개발비 낙찰 차액에서 사용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연구소 연구원 A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해 놓고 가사일 등 개인용무를 본 후 사무실로 복귀,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시사점 :

- ①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고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용무를 보고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허위 등록하여 수령하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지식마당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1.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이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다. 업무담당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공직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조직의 윤리강령에는 이해충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해충돌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조항의 예시
△ 조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관계 (예: 소유권, 고용관계)
△ 조직 경쟁자와의 관계
△ 선물, 식사, 유희 및 여행에 관한 관행
△ 가족구성원을 고용하거나 감동하는 일

이해충돌조항의 경우 명목상 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유형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피해를 주는가의 내용은 조직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2. 이해충돌의 사례

(1) 보험회사들은 손해액 관련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손해사정관을 채용하고 있다. 보험청구인이 최소 금액을 수령할 때 보험회사는 최대 이익을 보게 된다. 보험 정책에 관한 손해사정관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사정에 밝지 못한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험 청구와 같이 양측의 이익을 모두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항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 측에서 손해사정인이 공정하게 양측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음으로써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공개를 통해 쉽게 피해갈 수 있다.

(2) 93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소유한 의원이 총 87명이었고,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이었다. 이 중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식소유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가 보유한 000사의 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주식매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3) 회사에서 장비 구입을 담당하는 직원은 연말 결산에서 장비 구입 예산 절감 비율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직원에게 값싸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장비를 구입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비를 사용하게 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된다.

3. 이해충돌 예방

이해충돌은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윤리 리스크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그것을 완화시키려면 적절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방교육은 그 방식이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충돌방지교육은 윤리강령교육을 통해 전달되는데, 특히 재무/법무/감사/인사/조달/최고임원/관리 및 영업 등 조직의 핵심기능 종사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을 통해 전달할 핵심 메시지가 동일하더라도 청중의 집중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지식마당

따라서 교육의 핵심 메시지를 정신교육, 포스터, 윤리경영부서 파일의 익명사례, 리더십 집중교육, 최고 임원의 메시지, 기타 의사소통형식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의 시기, 기간, 전달수단, 준비 및 전달 책임자를 누구로 정할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이해충돌의 곤란을 겪는지를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4. 실천 가이드라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갖춰져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해충돌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항상 자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점검의 결과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에도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자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기점검의 결과 이해충돌이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이해충돌의 공개 및 인증

모든 이해충돌을 초기에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공개의 원칙이다. 공개는 이해충돌상황의 인식에서 해결까지 투명한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이해충돌방지의 모범적인 인증사례에는 △단순한 공개 대신 문서화된 인증서의 사용 △직원의 인증 완료를 돕는 지침 및 교육 제공 △신입사원에게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인증완료 요구 △이해충돌의 연례보고서나 요약물 고위 임원진 및 거버넌스 위원회에 배포 △조직의 기록물 보존정책에 따라 완료된 이해충돌 확인서 보관 △정기적인 갱신 및 갱신계획 수립(연 2회, 연례, 특별 자기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충돌이 조직구성원의 공평무사에 대한 승인 없이는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5. 이해충돌의 해결방법

이해충돌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계획에는 △관련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분리 △관련 직원에 대한 감독 역할을 다른 직원에게 이전 또는 다른 분야로 역할 이전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자산 처분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외부 활동종류 △제3자 보호계약조항에 동의 △해결이 불가능할 때 진행사안이나 참여의 거부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의 금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조직이 표준화된 이해충돌방지계획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 특수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사전 예방을 위해 청탁금지법 2단 성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기업들도 이해충돌을 윤리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 리뷰] ECI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보고서

기업윤리 브리프스(브로슈어) 2017-4호

위키백과, ‘이해충돌’

Quiz

- 다음 중 일반적인 이해충돌 조항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관계
 - ② 조직 경쟁자와의 관계
 - ③ 선물, 식사, 유흥 및 여행에 관한 관행
 - ④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직원을 고용하는 일
-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가 실효성을 갖기위한 전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②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방안 숙지
 - ③ 이해충돌 상황을 대비한 반복적 교육
 - ④ 이해충돌 상황을 대비한 일회성 교육
- 다음 중 이해충돌의 해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자산 은폐
 - ② 제3자 보호계약조항에 동의
 - ③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외부 활동종료
 - ④ 해결이 불가능할 때 진행사안이나 참여의 거부
- 다음 중 이해충돌의 공개 및 인증의 모범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입사원에게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인증완료 요구
 - ② 문서화된 인증서의 사용 대신 단순한 공개
 - ③ 직원의 인증 완료를 돕는 지침 및 교육 제공
 - ④ 이해충돌의 연례보고서나 요약물 고위 임원진 및 거버넌스 위원회에 배포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직원을 고용하는 일
2. 답 ④ 이해충돌 상황을 대비한 일회성 교육
3. 답 ①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자산 은폐
4. 답 ② 문서화된 인증서의 사용 대신 단순한 공개

관련 행사

1. Corporate Philanthropy Conference

2018
CORPORATE
PHILANTHROPY
CONFERENCE



주최 : Conference Board, Inc.

일시 : 2018년 12월 4일 ~ 2018년 12월 5일

장소 : New York, New York, USA

About the Conference

Just in time to finalize your 2019 planning, this event will equip you with new strategies, ideas, data, and tools to refresh your existing social impact and stakeholder engagement programs. Starting from the inside out, leading practitioners will delve into growing employee expectations, which require unprecedented collaboration between corporate citizenship, HR, and communications teams.

Join innovators and peers from the front lines to gain new insights for handling issues you never thought you'd need to address. From discussions on #MeToo and #NeverAgain to immigration and diversity, this event will provide best practices, case studies, and practical tools for the uncertain, high-stakes road ahead.

<https://www.conference-board.org/conferences/conferencedetail.cfm?conferenceid=2977#pricing>

2. Sustainable Innovation Forum 2018



주최 :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Climate Action

일시 : 2018년 12월 9일 ~ 2018년 12월 10일

장소 : Katowice, Slaskie, Poland

About

The Sustainable Innovation Forum brought together policy makers and technology innovators to discuss four key topics: Climate Finance, Circular Economy, Energy Transition and Sustainably Mobility.

600 climate leaders on the side-lines of COP24 joined with senior representatives from BMW group, Dow, Eaton, World Green Economy Organisation, Mission Innovation, Coca Cola, Siemens, Understory, TOMRA and more to network and debate.

Keynote speakers included: Michal Kurtyka, Ministry of Environment, Poland; Rachel Kyte, Sustainable Energy for All; Bob Wieckowski,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nd Hon. Guðmundur Ingi Guðbrandsson, Government Offices of Iceland, amongst others.

<https://www.cop-24.org/>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